

# 天地人 三才와 神仙道の 思想

—天地人 三才는 民族思想의 原型—

安 昶 範\*

## 目 次

- I. 序論
- II. 天地人 三才一體와 三神하나님의 原義
- III. 天地人 三才一體와 神仙道の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의 發生
- IV. 神仙道の 宗教思想
- V. 神仙道の 政治思想
- VI. 結論

## I. 序 論

아직도 民族思想 분야에 있어서 合理的 固有思想이 무엇인지, 그 原型思想이 무엇인지 분명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마치 체계적 敎理도 戒律도 없는 巫俗信仰이나, 外來의 道·佛·儒만이 민족사상의 전부인양 거론된다. 그것은 민족사상의 일부이지 전부도 아니며, 뿌리思想도, 原型思想도 아니다.

우리 민족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떤 위기에 임박하거나 행운을 만나도 하나님을 불렀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불렀다. 지금도 우리의 民俗에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神하나

---

\* 師範大學 助敎授

님 信仰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三神하나님이란 「高麗八觀記」의 三神說이나, 「史記」의 封禪書에 의하면, 天·地·人의 三才一體를 의미하고 있다. 즉, 天·地·人의 三才一體의 機能이 인간을 비롯하여 萬物을 낳고 키우고(造化), 교육하며 보호하고(教化), 다스리고 엄격하므로(治化) 이를 神格化시켜 三神上帝라 三神帝釋이라 三神하나님이라 또는 단순히 하나님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최근 88서울 올림픽에서도 우리의 民族魂으로 天·地·人 三才가 등장되었다. 이를 보면, 天·地·人의 三才一體思想이 우리 민족의 뿌리思想이며 原型思想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각종 辭典 및 民族宗教 측에서는 「三國遺事」 古朝鮮記에 등장하는 桓因·桓雄·桓儉(檀君王儉)의 三聖을 三神하나님으로 神格化시키고 있다. 즉, 三聖과 三神하나님이 서로 混同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民俗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天·地·人의 三神하나님思想이 巫俗으로 천대받고 있는가 하면, 體系的 民族思想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본고에서는 三神上帝나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神하나님의 본원적 意味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固有哲學이며 固有宗教인 神仙道(神道·神教·仙道·仙教)가 발원됨을 밝히고, 그 종교적 정치적 基本思想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神仙道는 元나라 몽고군의 약 100년 간에 걸친 高麗支配에 의하여 舊時代 植民地政策의 일환으로 완전히 타도당함으로써 그 思想과 戒律 및 儀式이 호도되었고, 그 遺蹟이 소실되어, 體系的 合理的 高等宗教인 神仙道가 巫俗으로 賤視되었는가 하면, 우리 민족은 主體哲學도 主體思想도 없는 未開民族으로 전락되어 왔다.

본고는 그와같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일부인 神仙道の 基本思想을 近千年만에 재조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神仙道는 우리의 것이면서도 남의 것이나 다름 없는 未開拓의 분야라는 점, 그에 대한 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증거의 불충분, 그의 필자의 연구경력의 부족과 논리의 미숙으로 본 연구에 하자가 많으리라고 본다. 깊은 이해있기를 바란다.

## Ⅱ. 天地人 三才一體와 三神하나님의 原義

三神上帝나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神하나님의 본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회승 「국어대사전」을 보면, 三神이란 상고시대에 古朝鮮의 國土를 마련하였다는 세 神이라 하면서 桓因·桓雄·桓儉이라 하는가 하면, 우리 나라 상고시절의 세 聖人, 즉 三聖도 桓因·桓雄·桓儉이라<sup>1)</sup> 하여 하나의 對象을 어느 때는 神靈이라 하고, 어느 때는 인간이라 하여 혼동하고 있다. 教育出版公社의 「世界哲學大事典」에도 三神이란 桓因·桓雄·檀君王儉(桓儉)이라 하고,

1) 이회승,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2, 三神과 三聖 참조.

桓因은 하나님이며, 桓雄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이고, 檀君王儉은 인간의 조상으로 이 三神은 三位一體의 守護神이라 하여<sup>2)</sup>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사실을 三神이라 하고 있다. 大宗教의 經典 「神理大全」을 보아도 한인·한웅·한검을 완전히 三神하나님(한얼님)으로 받들면서 그 기능까지 밝혀주고 있다. 즉,

한얼님은 한인·한웅·한검이시니, 한인은 造化의 자리에 계시고, 한웅은 教化의 자리에 계시며, 한검은 治化의 자리에 계시니라. 하늘에는 그 보다 더 위에 계신 이가 없으시며, 萬物에는 그 보다 더 비롯 된 이가 없으시고, 사람에는 그 보다 더 먼저 된 이가 없으시니라, 나누면 셋이요, 합하면 하나이니, 셋과 하나로서 한얼님 자리가 정해지느니라(이상 神位). 또한 한배검의 이치는 셋과 하나 일 뿐이니,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이는 쓰임(用)이 없음이요,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이는 그 몸(體)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는 셋의 體가 되고, 셋은 하나의 用이 되느니라(이상 神教)<sup>3)</sup>

「神理大全」의 기록에 의하면, 한인·한웅·한검(단군왕검)은 造化·教化·治化 등 우주의 기능을 주관하는 三神하나님(三神上帝)이며, 우리 나라 상고시절의 三聖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九月山 三聖祠에 관한 記錄을 보면, “桓과 檀은 같은 뜻이라” 하면서 檀因天帝·檀雄天王·檀君父王, 즉 한인·한웅·한검을 三聖이라 하여<sup>4)</sup>, 三神이란 말은 없다. 三聖祠에서 제사 지낼 때의 誓告文을 보아도 三神과 三聖을 구별하고 있다. 즉, 誓告文에 이르기를 “三聖의 높음은 三神과 더불어 공이 같고, 三神의 德은 三聖으로 인하여 더욱 커집니다” 하고 있다.<sup>5)</sup> 이를 보면 桓因·桓雄·桓儉(檀因·檀雄·檀君)은 우주의 기능을 주관하는 三神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나라 상고 시절의 三聖이다. 이상에 예시한 기록 외에도 거의 모든 기록에서 三神하나님과 三聖을 혼동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즉, 한인·한웅·한검(단인·단웅·단군)이 조화·교화·치화 등 우주의 기능을 주관하는 三神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 나라 상고 시절의 三聖인가?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三國遺事」古朝鮮記에 桓因을 帝釋이라 註釋하고, 桓雄을 桓因의 庶子라 하였으며, 檀君王儉을 桓雄이 아들이라 하고, 한편 朝鮮國을 세운 우리 민족의 國祖라고 밝힘으로써 위와 같은 혼동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본다.<sup>6)</sup> 그뿐만 아니라 상고대부터 우리 민족사회에 成立宗教인 神仙道가

2) 教育出版公社, 「世界哲學大事典」, 1980, 三神참조.

3) 李丙燾·崔東熙 外 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神理大全) 서울:三省出版社, 1979, p. 390, 393.

4) 韓國古典研究會 「民族文化論叢」(第一輯 神檀實記), 서울:民族文化社, 1981, p. 81.

5) 桂延壽 編, 金殷洙 譯, 「桓檀古記」, (檀君世紀 卷33세 檀君 甘勿 7年條), 서울:가나출판사, 1985, p. 76.

6) 一 然,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 第一, 古朝鮮(王儉朝鮮)記.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확실히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7)</sup> 여기에서 三神에 대하여 더욱 오해하게 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고대부터 우리 민족사회에는 高等宗教인 神仙道가 있었다. 神仙道는 한편 神道·神教·仙道·仙教라 불리우므로 그 道人(敎人) 가운데 大覺한 聖人을 神人·仙人·神仙이라 부른다. 따라서 三神이란 三神人(三神仙)으로서 儒敎적으로 표현하면 三聖이며, 佛敎적으로 표현하면 三佛로서 神敎의 표현인 것이다. 즉, 한인·한웅·한검(단군)을 三神이라 함은 그들이 우주의 기능을 주관하는 三神하나님을 의미함이 아니라 神仙道의 大聖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富弼의 「三國史記」와<sup>8)</sup> 李能和의 「朝鮮道敎史」에<sup>9)</sup> 단군왕검(한검)을 神人 또는 仙人이라 하였음은 단군왕검이 신선도의 大聖者임을 말하는 것이며, 九月山 三聖祠에 관한 기록에 한인·한웅·한검(단인·단웅·단군)을 三聖이라 하고 있음도 그들이 實在人物이며 神仙道의 大聖者임을 의미하고, 三神人을 유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神仙道는 道·佛·儒 三敎一體의 宗教이므로 大覺者를 神人·仙人하는 외에 佛陀·聖人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즉, 三神과 三聖은 다같이 大聖者로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면 世俗에서 말하는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神의 本源的 意味는 무엇인가? 그것은 三神人과 다른 天道를 말한다. 三神上帝나 三神帝釋을 줄여서 한편 三神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杵村先生에 의하면 “도가 하늘에 있으면 그것이 三神이며, 도가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이 三眞이다” 하였고,<sup>10)</sup> 「史記」封禪書에 의하면 “三神이란 天一·地一·太一(人一의 강조)이라” 하였으며,<sup>11)</sup> 「高麗八觀記」三神說에는 좀더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三神이란 天一·地一·太一이라 하고, 天一은 造化의 기능을, 地一은 敎化의 기능을, 太一(人一)은 治化의 기능을 주관한다 하고, 三神을 用, 그 體를 一上帝라 하였다.<sup>12)</sup> 이를 보면, 우리의 民俗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神하나님의 본원적 의미는 한인·한웅·한검의 一體가 아니라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를 의미하고, 그 기능은 조화·교화·치화로서 天道를 의미하고 있다. 天道를 응축하여 집약적으로 표현한 「天符經」에도 “一始無始一析三極無盡本天一—地—二人—三”이라<sup>13)</sup> 하여 天道를 天一·地一·人一로 표기하고 있다.

7) 成立宗教란 自然宗教에 비유한 말로서 說主·經典·敎理(思想)·戒律·儀式·來世觀 등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종교를 말한다. 神仙道가 그러한 종교임을 筆者의 拙著 「民族思想의 源流」(서울: 敎文社, 1988)에서 자세히 밝히었다.

8) 「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國本紀 第五, 十一, 東川王 21년條.

9) 李能和, 「朝鮮道敎史」, (影印本), 中央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7, pp.14~15.

10) 桂延壽 編, 金股洙 譯, 「桓檀古記」, (太白逸史, 蘇塗經典本訓), 서울: 가나出版社, 1985, p.278. 原文: 道在天也 是爲三神 道在人也 是爲三眞.

11) 司馬遷撰, 李成珪 編譯, 「史記」, (封禪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p.516.

12) 金股洙, 前掲書, 「桓檀古記」, (三神五帝本紀), pp.124~125.

13) 송호수 엮음, 「겨레얼 三大原典」, 서울: 인간연합, 4316(1983), p.3.

그러므로 三神하나님의 본원적 의미는 天道로서 天·地·人의 三才一體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역설하면, 天·地·人의 三才一體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造化·教化·治化하는 기능, 즉, 낳고·키우고·교육하며·보호하고·다스리는 기능이므로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三神帝王이니 三神할머니이니 三神풀이로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三神하나님의 본원적 의미를 확인하여 보자. 三神하나님의 「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東洋哲學에서 일반적으로 「一」은 太極을 의미하고, 「二」는 兩儀(陰陽 또는 天地)를 의미하며, 「三」은 天·地·人 三才를 의미한다.<sup>14)</sup> 따라서 三神하나님의 「三」은 天·地·人 三才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神」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太白逸史」蘇塗經典本訓에 의하면 “神은 氣이고, 氣는 곧 虛이며, 虛는 즉 一이다”고 하였다.<sup>15)</sup> 즉, 神은 一·氣·虛를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이 字義에 의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여도, 三神하나님은 天·地·人의 三才一體로서 天道를 의미하고 있다.

신이 「一」 또는 氣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 「一」 또는 氣는 어떠한 속성을 가져, 三神하나님이 天道로 되는 것일까? 「一」은 “하나일·날날이일·온통일”자로서<sup>16)</sup> 個體와 全體를 포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원용무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氣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神仙道を 계승하여 東學을 창도한 崔濟愚先生의 말씀에 의하면 “氣라는 것은 허영창창하여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모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였다.<sup>17)</sup> 즉, 氣라는 것은 우주 안에 존재하거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 가운데 가장 원초적 존재로서 無所不在하고 無所不容하며 無所不能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性理學에도 氣의 문제가 나온다. 신선도에서 말하는 氣는 性理學의 氣와 어떻게 다른가? 朱子の 性理學을 계승하여 集大成함으로써 東方朱子라고 불리우는 退溪에 의하면 太極에서 理와 氣로 갈라지는데, 理와 氣는 대립되는 개념이며, 理가 形而上學的 無形無質한 存在라면, 氣는 形而下學的 有形有質한 存在이다.<sup>18)</sup> 그러므로 神仙道에서 말하는 氣는 性理學에서 말하는 氣와 다르고, 그 보다 원초적 존재로서 性理學의 太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神·氣·一·太極은 결국 같은 의미인 것이다.

다음으로 天·地·人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字典에 의하면 「天」은 “하늘·만물의

14) 老子の 「道徳經」, 第42章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15) 金殷洙, 前掲書, p.206.

16) 張三植 編, 「大漢韓辭典」, 서울:眞賢書館, 1979, 「一」字.

17) 천도교 중앙총본부, 「天道教經典」, (東經大典, 論學文), 천도교 중앙총본부, 포덕 125년, p.189.

原文: 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18) 金得視, 「韓國思想史」 서울:良友堂, 1974, p.156.

근본·造物主·眞理·임금의 경칭·아버지·지아비·男性”의 뜻이다.<sup>19)</sup> 「一」은 神·氣·虛·太極과 같은 의미라 하였다. 그러면 天一은 天界(上界·宇宙)·太陽系·太陽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聖君·父·夫·男性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天」은 陰陽에 비유하면, 陽으로서 乾을 의미하므로 「天一」은 폭풍이 몰아치는 乾方 즉 西北方과 가장 추운 乾季 즉 冬節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地」는 「땅지」자로서 「天」과 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地一」은 地界(下界·自然界)·地球系(지구와 달)·地球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사람에 비유하면 聖臣·母·妻·女性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地」를 陰陽에 비유하면, 그것은 陰으로서 坤을 의미하므로 地一은 무더운 바람이 부는 坤方 즉 西南方과 가장 무더운 坤季 즉 夏節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人」은 “사람인·남인(他人·他物·萬物)”자로서 人一은 人間界·人體系·人事·子女·中性 그의 萬物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人」은 仁과 같은 의미로도 쓰임으로<sup>22)</sup> 人一은 五行에 비유하면 木으로서 온화한 바람이 부는 東方과 따뜻한 春節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따라서 天一·地一·人一은 天界·地界·人界 그 외 세상만사·만물의 성격과 기능의 집약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天一은 造化의 기능을, 地一은 教化의 기능을, 人一은 治化의 기능을 주관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神하나님을 어떻게 國譯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三神하나님은 天一·地一·人一の 三才一體라 하였다. 三才一體는 세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첫째, 三才一體는 天一·地一·人一을 會合하면 一體됨을 의미한다. 즉, 天+地+人=一體라는 等式을 의미한다. 三才一體는 三神一體와 같은 뜻인데 三神一體를 “하나를 잡으면 셋이 들어있다.(執一含三)”고 풀이함이 이를 의미한다. 둘째, 三才一體는 主體는 하나이나 그 기능이 조화·교화·치화 등 셋이라는 뜻이다. 三神一體(三才一體)를 用三體一 또는 會三歸一이라 풀이함이 그 뜻이다.<sup>24)</sup> 셋째, 三才一體는 天·地·人이 同等하다는 의미이다. 즉, 天=地=人이라는 等式을 의미한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天은 父, 地는 母, 人은 子息에 비유할 수 있는데, 父와 母는 子息의 입장에서 보면 同等하며, 자식은 부모의 피를 타고 났으므로 부모를 닮게 마련이다. 즉, 父·母·子는 닮아서 一體를 이룬다. 따라서 三才一體는 天·地·人이 同等하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三才一體를 國譯할 때,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三才一體는 천태만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너무나 神祕하므로 三神하나님이라 또는 三神一體라 불리우게 된 것이며, 상고대 우리

19) 張三植, 前揭辭典, 「天」字.

20) 「周易」, 文王八卦 解說 및 이희승,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82, 乾方 및 乾季 참조.

21) 上揭書, 坤方 및 坤季 참조

22) 張三植, 前揭辭典, 「仁」字 참조

23) 韓宗秀 外, 「易理學寶鑑」, 서울:明文堂, 1979, p. 3, 五行類象 참조.

24) 金殷洙, 前揭書, 蘇塗經典本訓, p. 207.

민족사회의 정치·종교·교육·사회·문화의 기본원리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申采浩 역시 “大檀君王儉이 이미 三神·五帝의 神說로써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神說에 의하여 人世 일반의 제도를 정하였다”고 하였다.<sup>25)</sup> 「太白逸史」에도 “三神一體는 庶物의 原理가 되어 높고도 크며 불가사이한 玄妙한 이치이다”하고 있다.<sup>26)</sup>

### Ⅲ. 天地人 三才一體와 神仙道の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의 發生

우선적으로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이 天·地·人의 三才一體機能에서 발원됨을 논증하려 한다.

三才一體는 天道로서 한편 天一은 조화의 기능을, 地一은 교화의 기능을, 人一은 치화의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화·교화·치화의 기능은 道·佛·儒의 대표적 기능이다. 즉, 道敎의 기본사상은 道인데, 「道德經」에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이라<sup>27)</sup> 하여 道의 主要機能은 造化機能으로서 그것은 天一의 기능과 서로 일치되며, 佛敎의 至上目標은 上求菩提 下化衆生으로서 그 주요기능은 教化機能인데, 그것은 地一의 기능과 서로 일치되고, 儒敎의 지상목표는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로서 그 주요 기능은 治化機能인데, 그것은 人一의 기능과 서로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만 보아도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은 天·地·人의 三才一體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道敎는 無爲의 性格을 지닌 종교요, 佛敎는 有爲의 이면서 無爲의 인 性格을 지닌 종교이며, 儒敎는 有爲의 인 性格을 지닌 종교이다.<sup>28)</sup> 天一의 기능이 無爲의 인 性格을 지니고, 地一의 기능이 有爲의 이면서 無爲의 인 性格을 지니며, 人一의 기능이 有爲의 인 性格을 지닌다. 따라서 道·佛·儒의 性格과 天·地·人의 성격이 서로 일치된다. 즉, 天一은 陰陽에 비유하면, 乾으로서 方位로는 西北方을 의미하고, 季節로는 겨울을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겨울이 되어 西北方에서 찬바람이 불고 찬이슬이 내리게 되면, 마치 寒帶性氣候같이 몹시 추워 거의 모

25)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丹齋申采浩全集」, 上, (朝鮮上古史, 第二編, 第二章, 三, 신수두의 三京五部制度), 서울: 螢雪出版社, 1979, p. 80.

26) 金殷洙, 前掲書, 三神五帝本紀, p. 122.

27) 「道德經」第42章.

28) 道敎는 無爲自然主義를 추구하므로 無爲의 인 宗教이며, 佛敎는 三法印(諸行無常印, 諸法無我印, 涅槃寂靜印)을 보면 無爲의 인 宗教이고, 五戒·十戒·250戒·348戒·500戒 등이 있는 것을 보면 有爲의 인 宗教이다. 그리고 儒敎는 「禮記」를 비롯한 儒敎經典 전체가 거의 인간의 行爲를 다루고 있어 有爲의 인 宗教이다.

든 生物이 冬眠에 들어가 無爲하게 된다. 따라서 道敎의 無爲의 性格은 天一의 性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地一은 陰陽에 비유하면 坤으로서 方位로는 西南方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여름을 의미하는데, 여름이 되어 태양이 正南에서 西南方으로 기울게 되면, 마치 熱帶性氣候같이 몹시 무더워 모든 생물이 거의 활동을 멈추고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이게 된다. 즉, 이 때는 거의 모든 生物이 有爲의이면서 無爲의인 動作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불교의 有爲의이면서 無爲의인 性格은 地一의 性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人一의 「人」은 仁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는데, 仁은 五行에 비유하면 木으로서 方位로는 東方을 의미하고, 계절로는 봄을 의미한다. 봄이 되어 동방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마치 溫帶性 氣候같이 따뜻하여 모든 生物이 활동을 활발히 한다. 즉, 그러한 기온에서는 거의 모든 생물이 有爲의인 性格을 지닌다. 따라서 儒敎의 有爲의 性格은 人一의 性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가지 더 비유하면 道敎는 殺生을 묵인함으로써 北方의이고 寒帶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데, 天一은 乾으로서 北方과 寒帶의 性格을 의미하며, 佛敎는 殺生을 禁함으로써 南方의이고 熱帶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데, 地一은 坤으로서 南方과 熱帶의 性格을 의미하고, 儒敎는 殺生을 가림으로써<sup>29)</sup> 東方의이고 溫帶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데, 人一은 仁으로서 東方과 溫帶의 性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도 道·佛·儒 三敎의 性格과 天一·地一·人一 三才의 性格이 서로 일치되고 있다. 이상 논한 바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道·佛·儒 三敎와 天·地·人 三才의 機能比較

|            |    |   |    |   |    |      |      |    |    |    |
|------------|----|---|----|---|----|------|------|----|----|----|
| 三才<br>(三神) | 天一 | 乾 | 西北 | 冬 | 寒帶 | 殺生   | 無爲   | 造化 | 道敎 | 三敎 |
|            | 地一 | 坤 | 西南 | 夏 | 熱帶 | 不殺生  | 有·無爲 | 教化 | 佛敎 |    |
|            | 人一 | 仁 | 東  | 春 | 溫帶 | 殺生有擇 | 有爲   | 治化 | 儒敎 |    |

이상 논구한 바에 의하면, 道·佛·儒 三敎의 기능과 天一·地一·人一의 三才기능이 서로 일치되어 道·佛·儒 三敎一體 思想은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老·釋·孔의 道·佛·儒 思想도 天人合一思想을 기본사상으로 한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三才一體기능에서 道·佛·儒 思想을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典據도 있다. 그렇다면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기능에서 道·佛·儒 三敎一體思想이 발원된다고 단언하여도 지니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전거를 먼저 든다.

「丹書口訣」에 의하면 “대저 하늘·땅·사람(天地人)을 三才라 하고 道·佛·儒를 三敎라 하니,

29) 國語(魯語 上), 禮記(月令 및 王制);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서울:博英社, 1981, p. 771에서 再引用.



三才가 이미 서면 三教는 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여<sup>30)</sup> 道·佛·儒 三教가 天·地·人 三才에서 발원된다고 하였다. 「蘇塗經典本訓」에도 「太白眞教는 天符에 근원하여 地轉에서 승하고 人事에서 切하였다" 하여<sup>31)</sup> 太白眞教가 天符·地轉·人事, 즉, 天·地·人 三才에서 발원됨을 밝히고 있다. 太白眞教는 太白山 즉 白頭山에서 발원된 종교로서 神仙道를 말한다.<sup>32)</sup> 또한 崔致遠先生의 智證和尚碑銘並序(曠陽山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에 의하여도 道·佛·儒 三教思想이 天·地·人 三才 기능에서 발원됨을 밝히고 있다. 즉, "序에 이르기를 仁·義·禮·智·信의 五常을 方位에 따라 나누니 動方(東方은 만물이 먼저 생동하는 방위이므로 動方이라고도 함)에 짝한 바가 仁이다. 仁은 道·佛·儒 三教를 일으켰으니 淨域에 나타난 이름이 佛이다. 仁心이 곧 佛이며, 佛目은 能仁의 法道로써 郁夷(東方)로 하여금 性品을 근본적으로 유순하게 이끌었다"고 하였다.<sup>33)</sup> 여기에서 보면 仁은 東方(韓國)을 의미하는데 仁思想이 道·佛·儒 三教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仁은 「人」자와 「二」자의 會意文字이며, 「二」는 수리상의 「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東洋哲學에서는 兩儀 즉, 天·地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仁字는 원래 天·地·人 三才의 會意文字이다. 따라서 仁思想이 道·佛·儒 三教를 일으켰다는 것은 天·地·人 三才機能이 道·佛·儒 三教를 일으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즉, 智證和尚碑銘並序에 의하여도 道·佛·儒 三教는 天·地·人 三才 기능에서 발원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사계의 모든 학자들이 인용하고, 韓國思想研究에 있어서 金石之文인 崔致遠鸞郎碑序를 國譯하여 우리 나라에 본래부터 玄妙之道인 神仙道가 있었고, 神仙道는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닌 高等 종교임을 논증하려 한다. 그런데 최치원 난랑비서는 지금까지 오역되고 있었다. 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필자의 국역과 일반적 국역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국민윤리」교과서에 기재된 國譯과 주장을 소개하고 비판한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曰 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sup>34)</sup>

위 원문에 대한 필자의 국역은 다음과 같다.

최치원 난랑비서에 이르기를 나라에 본래 玄妙之道가 있으니 風流라 한다. 이 종교를 창설한 연원

30) 李鍾殷 譯註, 「海東傳道錄·青鶴集」, (丹書口訣), 서울: 普成文化社, 1986, p. 181.

31) 金殷洙, 前揭書, (太白逸史, 蘇塗經典本訓), p. 209.

32) 安利範, 「民族思想의 源流」, 서울: 教文社, 1988, pp. 104~107.

33) 崔致遠, 「崔文昌侯全集」, 서울: 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2, p. 168. 智證和尚碑銘(並序): 序曰五常(仁義禮智信)分位, 配動方(東是萬物始生之方, 故曰動方)者曰仁, 三教(儒佛老)立, 名現淨域者曰佛, 仁心則佛, 佛目能仁則(音測, 法也)也, 導郁夷(東方)柔順性源.

34) 金富弼, 「三國史記」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二四, 眞興王, 37年條

은 神仙道(神仙思想)의 史書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道·佛·儒) 三教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어 모든 생명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감화한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온 즉 孝道하고, 나아가 죽 나라에 忠誠하니, 그것은 춘나라 司寇(孔子)의 教旨와 같고, 하염없는 일에 머무르고, 말 없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周나라 柱史(老子)의 宗旨와 같으며,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善한 일을 받들어 실행함은 竺乾太子(印度의 釋迦)의 教化와 같다.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 기술된 국역과 그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는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한다. 이 가르침을 설치한 근원은 이미 선사(仙史)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거니와 그것은 실로 유·불·선(儒·佛·仙) 3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모든 생명과 접하여 이들을 감화하였다(接化群生). 또, 이들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에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니, 이는 노나라 공자의 취지이며, 또 모든 일을 억지로 처리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실행함은 주나라 노자의 가르침이며, 악한 일을 하지 않고, 모든 착한 행실만 신봉하여 행함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이는 화랑도의 기본정신이 고유의 전통과 윤리 사상의 토대 위에 새로이 전래된 유·불·선 3교의 기본정신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풍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sup>35)</sup>

위의 두 가지 國譯에는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크나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 차이의 요지를 지적하면 필자의 국역은 花郎道(風流道)는 원래 玄妙한 宗教로서 천부적으로 道·佛·儒 合一의 三教一體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孔子의 教旨와 老子의 宗旨 및 釋迦의 教化를 묘합한 것과 같다는 것이며,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 기술된 일반적 국역에 있어서 화랑도가 道(仙)·佛·儒 三教思想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孔子 및 老子와 釋迦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前者의 國譯은 화랑도의 道·佛·儒 三教 사상을 先天的 固有思想으로 보는 것이고, 後者의 國譯은 화랑도의 道·佛·儒 사상을 後天的 外來思想으로 보는 것이다. 최치원 난랑비서에 대한 국역의 차이는 이상과 같이 民族思想史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固有宗教도 固有哲學도 없는 未開民族으로 비하되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기성 關係學者들의 불성실에서 빚어진 “최치원 난랑비서”의 오역에 있다. 原文中 가장 쉽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周柱史之宗也와 竺乾太子之化也”의 “宗也·化也”를 오역하여 각각 “가르치다”로 국역하고 있는 것이 관계학자들의 불성실을 입증한다. 宗字나 化字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글자이며, 그 뜻에는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오역되고 있다. 최치원 난랑비서에 있어서 花郎道(風流道)를 宗教로 확인하여 주는 “設教之源”의 “設教”와 그 사상을 밝혀주는 “實乃包含三教”의 “包含”과 三教의 내용을 비유하면서 밝혀주는 “且如”가 오역되고 있다.<sup>36)</sup> 이를 바로 해석

35)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pp. 52~53.

36) 7. 「設教」를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설치하다, 教를 설치하다”로 국역하나, 이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해석이며, 한편 “가르침을 베풀다”로 국역하나, 이는 「設教」와 混同하고 있는 것이

하면 필자의 국역과 같이 된다.

이제 필자의 國譯을 중심으로 神仙道는 원래부터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을 지닌 합리적 종교임을 논증하려 한다. 위 원문에 포현된 概念들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면, 鸞郎 즉 花郎=玄妙之道=風流=設教之源의 教 즉 宗教=仙史의 仙 즉 神仙道(神仙思想)=實乃包含三教이다. 다시 말하면, 花郎·玄妙之道·風流·宗教·神仙道·實乃包含三教가 相互等式關係이며 同系思想이다. 이를 보면, 神仙道는 玄妙之道로서 風流道 및 花郎道와 同系思想이며, 實乃包含三教한 합리적 宗教이다.

그러나 神仙道와 實乃包含三教의 等式關係가 너무 비약적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화랑도가 實乃包含三教(道·佛·儒 三教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사계의 모든 학자들이 공인하는 바이고, 화랑도를 玄妙之道라 하는 것도 사계의 학자들이 모두 공인한다. 그리고 玄妙之道는 神仙道이다. 그러므로 神仙道는 花郎道와 동계사상으로서 實乃包含三教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A=B, B=C. 그러므로 C=A라는 등식을 알면 이해될 것이다.

여기에 의심이 있다면 玄妙之道가 神仙道이나 하는 문제이다. 玄妙의 일반적 의미는 사상·기에 같은 것이 깊숙하고 헤아릴 수 없이 오묘하다는 뜻이나, 종교적 의미는 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抱朴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호은 자연의 이치이고, 만물이 발생하는 궁극의 원리이다. 호은 형체가 있는 만물에 의하여 유가 되고, 몸을 정적에 담을 때는 무가 된다. 그 근생에는 쇠나 돌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부드러움에는 풀 끝의 이슬로도 미칠 수가 없다. 와도 보이지 않고, 가면 그 뒤를 쫓을 수가 없다. 하늘은 그 호에 의해서 높고 땅은 그 호에 의해서 낮다. 구름은 이 호에 의해서 날고, 비는 이 호에 의해서 내린다. 호은 唯一實在를 자신의 내부에 잉태하고, 이것이 陰陽의 두 범조를 전개한다. 아무리 더하여도 넘치는 일이 없고, 아무리 떼내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玄道를 얻은 사람은 위인이다.…… 흐르는 광선을 타고 날으는 벌에 채찍질을 하여 허공을 마음대로 날고, 대지를 꿰고, 끝없는 높이에 오르고 끝없는 깊이에 도달한다. 광활한 문을 지나 아득한 별판에서 논다. 황홀한 세계를 소요하고 혼돈의 세계 밖을 서성거린다.……이것이 玄道(玄妙之道; 妙는 호의 강조; 필자 註)를 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sup>37)</sup>

이와 같이 玄妙之道는 우주 만물의 발생의 原理 내지 인간이 외경하는 초인적 능력 및 仙境을 의미한다. 즉, 玄妙之道를 터득한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물에 빠지지도 않으며,

다. 張三植 편 「大漢韓辭典」의 「教」字에 의하면 「設教」는 “종교를 창설하다, 종교를 일으키다”는 뜻임.

ㄴ. 包含을 包涵과 혼동하고 있다. 「包含」은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包涵」은 “밖으로부터 받아들여 지니고 있다”는 뜻임(우리말 사전 참조).

ㄷ. 「且如」를 보통 “또, 또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로 국역하나, 그것은 誤譯이며, “이것은……과 같다. 이를테면……과 같다. 다시 말하면……과 같다”는 뜻이다. 「且」는 “또(다시)·이것”이라는 뜻임.

37) 葛洪, 「抱朴子」, 內編, 暢玄 卷一, 張基權·金瑋永 譯, 「淮南子·抱朴子」, (中國思想史大系 7) 서울: 新華社, 1983, pp. 316~320.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아 不老長生하며, 時空을 초월하여 無次元의 세계에서 마음대로 身變自在하며 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玄妙之道는 神仙道인 것이다. 여기에서 神仙道는 花郎道 및 風流道와 同系思想으로서 實乃包含三教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된다.

또한, 花郎을 仙人·仙郎·仙風·國仙 등 神仙이라 부르고,<sup>38)</sup> 新羅의 四仙인 永郎·述郎·南郎·安郎을 한편 花郎이라 한다. 이는 곧 神仙이 花郎이며, 花郎이 神仙임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의 彌勒仙花 항목을 보면, 彌勒仙花가 彌勒佛·神仙·花郎을 묶어 표현되고 있듯이 神仙과 花郎이 동격으로 나타나 있고,<sup>39)</sup> 新羅 花郎들이 生態가 神仙과 같으며, “신라 제24대 眞興王이 그 天性이 風流를 즐기고, 神仙을 몹시 숭상하여 原花(女花郎)를 받들었다”고<sup>40)</sup> 하였으므로 神仙과 花郎은 同格이다. 그러므로 花郎道가 實乃包含三教하고 있다면, 神仙道 역시 實乃包含三教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實乃包含三教란 근본적으로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을 이미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즉, 神仙道는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을 후천적으로 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神仙道가 體라면, 道·佛·儒 三教는 用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사회에는 상고대부터 합리적 고등종교인 神仙道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固有哲學이며 固有宗教인 것이다.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巫俗信仰이나, 外來의 道·佛·儒 思想은 우리 민족의 枝葉思想이며 民族思想의 일부임을 이제 알게 된다. 더우기 그러한 사실이 新羅의 대문호 崔致遠先生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 1,000年 가까이 外來思想만을 배워왔고, 우리 민족의 固有思想은 巫俗으로만 알아왔기 때문에 道·佛·儒 三教一體의 神仙道가 우리 민족의 固有宗教임을 쉬이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보자.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은 天·地·人의 三才一體 기능에서 발원됨을 앞에서도 일부 밝혔고, 뒤에서도 밝힐 것이다. 三才一體는 우리의 민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하는 것이다. 따라서 道·佛·儒 三教一體의 神仙道는 우리 민족의 固有宗教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三神上帝니 三神帝釋이니 하는 三才一體思想이 원래 우리 민족의 土俗思想이나 아니면 外來思想이나 하는 문제이다. 三才一體思想의 歸屬如何에 따라서 道·佛·儒 三教一體思想의 귀속도 달라지게 된다.

思想이나 信仰은 風土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사상이나 신앙은 生活에서 나오고, 생활은 풍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東洋思想은 東洋風土에서 나왔고,

38)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VI, 信仰), 서울: 三星文化文庫, 1974, p. 151.

39) 「三國遺事」, 卷第四, 塔像 第四,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40) 上揭書, 同卷, 同記에 “第二十四 眞興王…… 又天性風味 多尙神仙擇人家娘子美艷者 捧爲原花”라 함.

西洋思想은 西洋風土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三才一體思想이 우리 민족의 土俗思想이라면, 그것이 우리 나라의 풍토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풍토란 氣候·地勢·土產物 등이라 할 수 있으므로, 天·地·人의 성격이나 기능이 우리 나라의 기후·지세·토산물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로 天·地·人의 기능 및 성격과 우리 나라 氣候와의 관계만을 간략히 검토한다.

天은 乾으로서 方位로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西北方을 의미하고, 季節로는 一年四季中 가장 추운 때인 冬節을 의미하므로 天은 寒帶의 성격과 機能을 의미한다. 地는 坤으로서 方位로는 무더운 바람이 불어오는 西南方을 의미하고, 季節로는 一年四季中 가장 무더운 때인 夏節을 의미하므로 地는 熱帶의 성격과 機能을 의미한다. 人의 「人」은 仁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仁은 五行中 木에 해당하며, 木은 方位로는 따스한 바람이 부는 東方을 의미하고, 季節로도 역시 따스한 春節을 의미하므로, 人은 溫帶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 즉, 天·地·人은 寒帶·熱帶·溫帶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三才一體는 天道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의 아침·낮·저녁·밤이나, 一年의 봄·여름·가을·겨울 및 한대·열대·온대는 地球의 公轉 및 自轉에 의해서 생기고, 또 그것은 太陽系 및 다른 天體의 引力과 地球의 引力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후가 우리 나라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만약, 그러한 기후가 우리 나라에 있다면 三才一體思想은 外來思想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土俗思想이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道·佛·儒 三教一體思想, 즉 神仙道 역시 우리 민족의 固有哲學이며 固有宗教라 단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후는 세계에서 唯一無二하다. 다른 나라에도 一年에 봄·여름·가을·겨울의 四季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一年四季는 더욱 특이하다. 우리 나라는 大陸과 大洋의 중간에 위치하여 大陸性 氣候와 海洋性 氣候의 영향을 받아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이가 극히 심하다. 겨울의 大小寒 때는 섭씨 零下 30~40℃에 이르러 마치 한대지방의 기후와 같고, 여름의 三伏더위 때는 섭씨 영상 30~40℃에 이르러 마치 熱帶地方의 氣候와 같으며, 봄과 가을의 春分과 秋分 때는 섭씨 영상 18℃ 前後로서 溫帶地方의 기후 그대로이다. 즉, 우리 나라에는 寒帶·熱帶·溫帶가 모두 共存하고 있다. 여기에서 天·地·人의 三才一體의 성격과 기능은 우리 나라의 氣候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天·地·人의 三才一體는 天道로서 우리 나라의 기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三才一體는 外來思想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土俗思想이며,

41) 氣候 이외에 神仙道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베풀어진 白頭山과 거기에서 生産되는 山蓼과 호랑이에도 三才一體의 현상이 있다. 백두산에는 봉래·방장·영주의 三神山(列子·太白逸史)이 있고,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天池와 거기에서 발원하여 西北方(乾方:天)으로 흐르는 송화강과 西南方(坤方:地)으로 흐르는 압록강 및 東方(仁方:人)으로 흐르는 두만강의 三江一池가 있다. 또한 백두산에서 생산되는 山蓼은 이를 不老草·不死藥·神草·仙草라 하듯, 神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그 썩이 하나이고 가지가 셋인 三極一莖草이다. 三極一莖은 天·地·人 三才一體.

거기에서 발원된 道·佛·儒 三教一體思想, 즉 神仙道는 우리 민족의 固有哲學이며, 固有宗教라 단언할 수 있다.

#### IV. 神仙道の 宗教思想

「一」은 원초적 개념으로서 個體와 全體를 포용하며, 한편 만사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는 「氣」의 의미로서 원용무애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天一은 天界·上界·宇宙·태양계·태양·北方·冬節, 사람에 비유하면 聖君·父·夫·男性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하며, 地一은 地界·下界·自然界·地球系(地球와 달)·地球·南方·夏節, 사람에 비유하면 聖臣·母·妻·女性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하고, 人一은 人間界·人體系·人事·子女·中性·東方·春節, 그의 온 생명체의 성격과 기능을 대표한다고 하였다.

또한,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三神一體)의 해석에 있어서 그것은 天·地·人을 會合하면 一體(天+地+人=一體)가 되고, 天·地·人은 同等(天=地=人)하며, 主體는 하나이나 그 쓰임은 造化·教化·治化의 셋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太白逸史」에 天一·地一·人一(太一)의 三才一體(三神一體)는 庶物의 原理가 되어 높고도 크며 불가사이한 玄妙한 이치라 하였다. 이 말은 우주현상은 물론 정치·종교·교육·사회·문화·군사·예술 등 상고대 우리 민족의 사회현상 일반이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原理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역설하면, 三才一體의 原理에 의해서 상고대 우리 민족의 사회현상 일반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항목에서는 三才一體의 原理에 의해서 神仙道の 宗教思想 일반을 밝히면서 아울러 道·佛·儒와 공통되는 사상을 지적코자 한다.

첫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弘益人間 在世理化思想이며, 그 사상은 神仙道の 至上目標이다.

三才一體는 天一·地一·人一의 一體이다. 「一」은 원용무애의 성격을 지니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 경우 「一」을 人格의 의미로 파악하면,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인격적 合一思想이다. 이를 나누어 말하면, 그것은 天人合一·地人合一思想이 된다. 즉 미개한 인간을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경지와 땅과 같은 자애로운 성겨으로 개조하여야 한다는 開闢思想이 된다. 풀어 말하면, 三才一體는 思想·技術·文化的인 측면에서 人間開闢·민족개벽·사회개벽·세계개벽을 통한 弘益人間 在世理化의 理想 世界建設을 의미한다. 이 사상은 神仙道の 至上目標로서 그것은 불교의 지상목표인 上求菩提 下化衆生에 해당되고, 유교의 지상목표인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에

君·師·父, 父·母·子 三位一體를 의미하며(한영채, 「人夢과 山夢」, 창조사, 1981), 백두산 호랑이는 날새고 용맹하나, 인자하여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오히려 修道人들을 보호함으로써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面上에는 三才一體를 상징하는 「王」자가 밝혀져 있다. 王자의 「三」은 天·地·人을, 「一」은 一體를 의미한다.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당된다. 여기에서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原理는 儒·佛의 발생원리라는 것도 일차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둘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神仙思想이다. 天一·地一·人一의 「一」을 능력의 의미로 파악하면,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능력의 同一性을 의미한다. 인간의 능력이 하늘이나 땅의 능력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배우고 닦고 수양하여 최고의 大覺을 하거나 인간의 靈氣가 하늘과 땅의 영기와 合一하게 되면, 無次元의 世界에서 허공을 날 수도 있고, 하늘과 같이 風雲造化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땅과 같이 植物을 손바닥에서 낳고 자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三才一體는 人間能力의 무한한 發展可能性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神仙思想이라는 이론이 성립된다. 이는 老子道敎의 至上目標이다. 여기에서 老子의 道敎도 三才一體原理에서 발원됨을 알게 된다.

세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玄妙之道이다. 앞에서 玄妙之道가 神仙道임을 밝혔다. 여기에서는 다른 측면에서 밝혀본다. 天一·地一·人一의 「一」을 色의 의미로 파악하면, 天一은 青色, 地一은 黃色, 人一은 赤色으로서 青·黃·赤은 三元色이다. 青·黃·赤 三元色을 같은 비율로 合一하면 검정색 즉 玄色이 된다. 그러므로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는 玄妙之道이다.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해석하여도 三才一體는 玄妙之道이며, 玄妙之道는 神仙道이다.

네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萬物同根思想 내지 生命平等思想이다.

萬物同根思想 내지 生命平等思想이란 인간·동물·식물 그외 일체 萬有의 根本을 들여다 보면, 모두가 한 뿌리에서 나와 근본이 같고 평등하다는 사상이다. 즉, 일체 萬有의 差別相을 부정하는 思想이다. 이는 老子의 道敎, 석가의 佛敎, 孔子의 原始儒敎에 공통되는 思想이기도 하다.

三才一體는 天一·地一·人一의 一體이다. 이는 宇宙(天)나 自然界(地) 및 인간(人)이 모두 一氣의 化生으로서 한몸이란 뜻이다. 즉, 일체 만유는 모두 一氣의 化生으로서 根本이 동일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三才一體는 萬物同根思想이다. 또한, 天一·地一·人一의 「一」을 존엄의 의미로 보면, 三才一體는 天·地·人이 다 같이 존엄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말은 인간은 물론 일체 萬有의 근본을 들여다 보면, 모두가 한얼과 같이 존엄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三才一體는 일체 만유의 差別相을 부정하고 존엄성을 의미하는 萬物同根思想이며 生命平等思想이다.

다섯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有神論과 無神論을 다 포용하는 有無不二의 思想이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神이라 할 때, 그것은 초인적 불가사의한 능력을 가져 인간은 물론 萬有와 宇宙까지도 창조하시고 조화를 부리며, 인간 위에 있으면서 인간에게 화복을 내리는 그러한 존재를 말한다. 神仙道の 三才一體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한 意味의 神이 없다는 것이다. 즉, 절대자로서의 神, 지배자로서의 神, 창조자로서의 神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三才一體는 한편 三神一體로도 표현된다. 그래서 神仙道가 有神論같이 보인다. 그러나 三神一體의 三神은 天一·地一·人一로서 인간의 지배자도, 창조자도 아니므로 有神論이 아니다. 즉 無神論이다.

② 단순히 「三神」이라 표현한 경우도 그것은 桓因·桓雄·桓儉의 三聖을 神敎的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神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大覺한 인간을 의미한다.

③ 앞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三神一體의 神의 뜻은 天·地·人의 「一」이다. 「一」은 氣이고, 氣는 虛이며, 虛는 空으로서 인간을 지배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神의 뜻이 아니므로 神仙道는 有神論이 아니다. 즉 無神論이다.

④ 三神一體란 天·地·人을 대립적 위계적으로 파악한 표현이 아니라, 一體的 水平的으로 파악한 표현이다. 즉, 三神一體는 神本位思想도 아니고, 人間本位思想도 아니다. 인간 위에 神이 없고, 인간 밑에 神이 없으며, 神 위에 인간 없고, 神 밑에 인간 없다는 의미이다. 神이 곧 인간이며, 인간이 곧 神이라는 의미이다. 즉, 三神一體는 神人合一·神人一體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神仙道の 三神一體는 無神論이다.

그러나 한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sup>42)</sup> 有神論이다. 즉 物活論 내지 汎神論이다. 物活論이란 일체 萬有에 의식과 생명이 있다는 思想이며, 汎神論이란 物活론을 靈的 神祕的 차원에서 파악한 사상으로 太陽이든 地球이든 自然界이든 일체 萬有에 의식과 生命과 靈이 있다는 사상이다.

三才一體는 그러한 意味의 物活論 내지 汎神論이다. 天·地·人의 「一」을 의식과 생명과 영혼의 의미로 파악할 경우, 三才一體는 인간에 의식과 생명과 영혼이 있듯이 우주(天)와 지구 및 자연계(地)에도 의식과 생명과 영혼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物活論이면서 汎神論이다. 즉,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有神論이다. 또한, 바로 위에서 三才一體는 無神論임을 밝혔다. 이를 생각하면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有神論과 無神論을 다 포용하는 有無不二의 思想이다. 이 사상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三才一體는 反對一致 내지 兩極一體思想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宗教人과 非宗教人(儒敎人 포함)이 거의 같은 비율로 공존함도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니, 三才一體를 한편 三神一體라 하는데, 三神一體의 神을 일반적 意味의 神으로 파악할 경우, 三神一體를 多神論的 一神論으로, 또는 汎神論的 一神論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모순임을 알아야 한다.

여섯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循環論(輪廻思想)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순환론(윤회사상)이란 東學에서 말하는 春秋迭代 四時盛衰<sup>43)</sup> 같은 뜻으로 봄·여름·가을·겨울의 一年四季가 돌아가듯, 시작이 있는 듯 하면서 없고, 끝이 있는 듯 하면서 없으며, 세상만사가 돌고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一體이다. 여기에서 「一」을 空間 또는 時間의 의미로 보면, 三才一體는 天界·地界·人界의 三界一體를 의미하며, 아울러 과거·현재·미래의 三世一體를 의

42) 三神一體와 三才一體를 혼용하고 있으나 神이나, 才는 모두 天·地·人의 신비한 기능과 성격을 의미하고 있어 결국 같은 뜻임을 알아야 한다.

43) 前掲「天道敎經典」, (東經大典, 布德文), p. 161.



미한다. 우주의 空間과 時間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면, 三才一體는 天界·地界·人界도 연결된 하나의 空間이며, 과거·현재·미래도 연결된 하나의 時間이라는 의미이다. 즉, 三才一體는 시간과 공간을 미시적 분석적으로 파악하면, 天界·地界·人界가 각각 다르고, 과거·현재·미래도 각각 달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거시적 통일적으로 파악하면, 天界·地界·人界도 연결된 하나의 空間이며, 과거·현재·미래도 연결된 하나의 時間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三才一體는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없다는 無先無後 無頭無尾의 一圓思想이다. 「天符經」의 一始無始—과 一終無終— 및 萬往萬來가 이를 의미한다. 이는 시작이 있는 듯 하면서 없고, 끝이 있는 듯 하면서 없으며, 세상만사가 가고 온다는 의미이다. 즉, 세상만사가 一個事物의 形態로 보면, 시작과 끝이 있으나, 大全的 巨觀的으로 事物의 根本을 보면 시작과 끝이 없이 가고 오며 돌고 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循環論 내지 輪廻思想이다. 이에 대하여 실증을 들면,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一體인데, 한편 天—은 太陽系를, 地—은 地球系를, 人—은 人體系를 의미한다. 태양계에서는 惑星이 太陽 주위를 순환하고, 地球系에서는 달이 地球 주위를 순환하며, 人體系에서는 氣가 육체를 순환한다. 그러므로 三才一體는 循環論이다. 이러한 思想을 하나의 형상으로 나타내면 그것은 「☵」字가 된다. 오늘날 「☵」字가 불교의 表象으로 되고 있으나, 원래 神仙道の 表象으로서 우리 민족 固有의 것이다.<sup>44)</sup>

일곱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三元論的 一元論이다.

天—·地—·人—의 「—」을 單元의 의미로 보면, 三才一體는 陽性(天)·陰性(地)·中性(人)의 三單元을 會合하면, 하나의 완성된 個體(體系)가 되고, 하나의 완성된 개체(세계)를 분석하면 陽性(天)·陰性(地)·中性(人)의 三單元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事物이든 그것이 하나의 완성된 個體라면 陽性·陰性·中性의 三單元으로 구성되었다는 三元論的 一元論이 三才一體이다. 또한 太陽系(天)·地球系(地)·人體系(人)도 하나의 완성된 個體이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모두 陽性·陰性·中性의 三單元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東洋醫學에 의하면 人體系(기타 生物)는 心·氣·身(또는 性·命·精)의 三單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氣가 경맥을 따라 육체의 上下·左右를 회전한다. 原子構造도 양성자와 중성자 및 전(성)자의 三單元으로 구성되어 있다.<sup>45)</sup> 電(性)자가 核(양성자와 중성자)의 上下·左右의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 太陽系를 보면 惑星이 태양 주위의 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地球系를 보면 달이 地球 주위를 회전한다. 이와 같이 원자·인체계·태양계·지구계의 구조가 같고, 三單元으로 구성

44) ㄱ. 崔仁, 再考證「韓國思想의 新發見」, 서울:乙支社, 1981, p.241.

ㄴ. 朴時仁, 「알타이 人文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5, pp.386~387.

45) 三才一體의 논리에 의하면 原子의 양성자와 중성자도 각각 이들보다 더 작은 素粒子인 三單元으로 구성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原子構造는 극히 복잡하다는 논리임.

되어 있다.<sup>46)</sup> 이와 같이 신선도의 三才一體原理는 비록 상고대에 창안되었으나 극히 과학적이다.

三元論의 一元論을 現代哲學의 二元論과 비교하여 보자. 二元論이란 우주의 구성을 정신과 물질, 主體와 客體, 善과 惡의 대립적 二單元으로 구성되었다고 믿는 學說이다. 이러한 學說은 과학적으로도 오류를 범하고 있거니와 그러한 학설에 의하면 나와 너, 自民族과 他民族, 自國과 他國, 個人主義와 全體主義, 唯心論과 唯物論, 有神論과 無神論,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대립과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즉, 二元論은 사회를 경쟁과 투쟁의 장으로 본다. 그러므로 二元論的 思考에 의하면, 이 社會는 발전과 파괴의 연속이며, 人類社會의 영구적 평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神仙道의 三元論의 一元論은 대립적 兩極을 어느 일방에 의하여 조화시키는 一體思想이다. 즉, 人體系는 氣의 회전에 의해서, 原子는 電子의 회전에 의해서, 태양계는 惑星의 회전에 의해서, 地球系는 달의 회전에 의해서 각각 조화와 一體를 형성한다. 만약 氣·電子·惑星·달의 회전이 없다면, 인체·원자·태양계·지구계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心과 身이 거니, 陽性과 中性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도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三元論의 一元論에 의하면 사회를 대립과 투쟁의 場으로 보지 않고 一體의 場으로 본다. 모든 관계를 “우리의 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三元論의 一元論은 나와 너, 自民族과 他民族, 自國과 他國, 個人主義와 全體主義, 唯心論과 唯物論, 有神論과 無神論,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대립적 兩極關係를 一體關係 내지 “우리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렇게 볼 때,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신선도의 三元論의 一元論의 普及 및 發展이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앞으로는 韓國思想이 요청되는 때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대립적 兩極關係의 互惠一體思想이다.

위에서 설명하였으나, 神仙道의 三才一體는 대립적 양극관계의 互惠一體思想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一體이다. 「一」을 대립적 極의 意味로 보면, 三才一體는 天極·地極·人極의 三極一體이다. 이는 대립적 三極을 통일적 一體로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人間關係나 社會關係 및 國際關係에 있어서 모든 相對關係를 통일적 互惠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그것은 天人合一, 聖俗一體, 貴賤一體, 物心雙全, 文武兩全, 教政一體(祭政一致), 善惡一體, 忠孝兩全, 主客一體, 自他一如, 個全一體, 有無不二, 官民一體, 男女平等, 四民平等, 四海同胞主義, 우리 意識, 弘益人間思想이 된다. 이러한 思想은 東洋三教인 道·佛·儒에 모두 공존한다.

대표적으로 三才一體原理에서 善惡一體思想을 논증하면 아래와 같다. 三才一體는 循環論이라

46) 太陽系와 地球系가 三單元으로 구성되었다 함은 太陽과 地球도 陽性과 中性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뿐더러 全體宇宙를 하나의 個體로 본다면, 달이 地球의 주위를, 惑星이 太陽의 주위를 순환하듯, 太陽도 그 보다 더 큰 다른 恒星을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太陽도 하나의 惑星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설명하였다. 순환론에 있어서는 세상만사를 시작과 끝이 없이 가고 오며 돌고 도는 것으로 본다. 시작과 끝이 없이 가고 오며 돌고 돌므로 거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창조되고 소멸되는 것도 없다. 창조되고 소멸되는 것이 없으므로 새 것도 낡은 것도 있을 수 없다. 새 것도 낡은 것도 없으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을 수 없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으므로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없으며, 잘되고 못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三一神話」의 기록대로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근본을 들여다 보면 모두가 “無善惡·無清濁·無厚薄”<sup>47)</sup>하다는 것이 三才一體의 論理이다. 따라서 三才一體는 善惡一體思想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상대적 兩極關係를 互惠一體關係로 본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교육 등 모든 분야의 相對關係를 民族과 國家와 思想 및 理念을 초월해서 互惠一體關係로 본다. 즉, 상대관계가 共存共營하는 相生思想이다. 따라서 神仙道는 玄妙之道이며, 民族宗教를 초월하여 國際的 世界宗教인 것이다.

아홉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한」概念을 포용한다.

三才一體는 대립적 兩極關係의 互惠一體思想이라 하였다. 그러한 意味의 三才一體는 우리 말 「한」의 의미와 같다. 즉, 「한」은 個體와 全體, 聖과 俗 등 反對一致, 兩極一體의 概念으로서 상대적 대립관계를 포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48)</sup>

그 예를 들면, “한번·한 알·한 개”의 「한」은 唯一·單一·個體를 의미하고, “물을 한입 먹고·짐을 한 배 싣고”의 「한」은 충만 즉 전체의 뜻이다. 즉, 「한」은 個體와 全體를 포용하는 個全一體思想이다. “한두 사람·한 것·한 술”의 「한」은 少量·少數를 의미하고, “하다;多”의 형용사 「한」은 多量·多數를 의미한다. 즉, 「한」은 少數(少量)와 多數(多量)를 포용하는 多少一體思想이다. 또한, “한통속·한패”의 「한」은 同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低俗을 의미하며, “한얼·한울·한검”의 「한」은 神聖을 의미한다. 즉, 「한」은 聖과 俗을 포용하는 聖俗一體思想이다. “한없이·한길·한내·한들”의 「한」은 無限大·넓다의 뜻이며, “한복판·한여름”의 「한」은 복판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를 의미한다. 즉, 「한」은 遠心的인 것과 求心的인 것을 모두 포용하는 遠近不二, 親疎一如, 主客一體思想이다. 이와 같이 「한」의 뜻은 反對一致, 兩極一體의 概念이며,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一體思想이다. 그런가 하면, “한십분·한동안·한얼마리”할 때의 「한」은 수리상 모호한 “대략”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한개·한마리”할 때의 「한」은 수리상 명확한 개념이다. 이와 같이 「한」의 概念은 다양한 뜻을 내포하면서 극히 조화적이고 포용적이어서 兩極關係 互惠一體思想이다. 즉, 「한」은 그러한 意味의 三才一體概念과 일치한다. 따라서 三才一體는 「한」의 概念을 포용한다.

열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陰陽五行思想의 基本原理이다.

47) 송호수, 前掲書, 「겨레의 三大原典」, (三一神話, 眞理訓), p. 11.

48) 최민홍, 「한 철학」, 서울: 성문사, 1984, p. 45, 188.

陰陽思想이란 强과 柔, 積極的인 것과 消極的인 것, 하늘과 땅, 男性과 女性 등의 陰陽關係가 상호 對立競爭關係가 아니라 相扶相助의 불가분적 관계임을 의미하고, 이에는 太陽과 太陰, 少陽과 少陰의 四象이 있다.<sup>49)</sup> 五行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木·火·土·金·水의 다섯 가지로 動靜變化 내지 生成消滅 등 循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陰陽五行思想이 三才一體原理에서 발원된다.

앞에서 三才一體는 循環論이라 설명하였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순환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들면 日月星辰의 循環, 즉 惑星이 太陽의 주위를 순환하는 것과 달이 地球의 주위를 순환하는 것이다. 그것은 太陽과 惑星, 地球와 달의 불가분적 相互引力作用에 의하여 생긴다. 이를 陰陽에 비유하면 太陽과 惑星의 관계는 太陽과 太陰의 관계에 해당되고, 地球와 달의 관계는 少陽과 少陰의 관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太陽과 惑星, 地球와 달(日月星辰)을 四象이라 하고,<sup>50)</sup> 이들이 서로 끌고 당기며 순환하는 陽과 陰의 關係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 陰陽思想은 天地(太陽系와 地球系)의 循環原理, 즉 三才一體의 原理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五行思想은 어떻게 발원되는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地球가 太陽의 주위를 自轉함으로써 朝·晝·夕·夜의 四時와 公轉함으로써 春·夏·秋·冬의 四季가 생기고, 東·南·西·北의 四方의 기능과 그 성격이 상이하게 된다. 이들 四時·四季·四方의 기능과 그 성격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木·火·金·水이고,<sup>51)</sup> 그것은 土인 地球의 自轉과 公轉에 의해서 생기므로 土가 중앙에 위치하여 木·火·土·金·水로 된다. 이를 五行이라 하며, 土는 木·火·金·水에 모두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五行思想도 陰陽思想과 더불어 天地의 循環原理, 즉 三才一體의 原理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五行을 陰陽의 둘로 나누어 그 기능과 성격을 표현한 것이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十天干(幹)인데 甲丙戊庚壬은 陽干이 되고, 乙丁己辛癸는 陰干이 되며, 甲乙은 東方木에 속하고, 丙丁은 南方火, 戊己는 中央土, 庚辛은 西方金, 壬癸는 北方水에 속한다.<sup>52)</sup>

또한, 地球의 自轉에 의해서 十二時(현재는 二分하여 二十四時)가 생기고, 달이 지구 주위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公轉함으로써 十二月가 생긴다. 이들 十二時와 十二月의 기능과 그 성격을 간략히 표현한 것이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十二地支(枝)이다.<sup>53)</sup> 그러므로 十二地支도 四時·四季·四方의 기능과 성격을 의미하며, 五行思想을 그대로 반영한다. 즉, 寅卯辰은 東方木에, 巳午未는 南方火에, 申酉戌은 西方金에, 亥子丑은 北方水에 각각 속하며, 寅卯辰은 春, 巳午未는 夏, 申酉戌은 秋, 亥子丑은 冬에 해당되며,<sup>54)</sup> 土는 곧 地球이며 中央이므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

49) 이회승, 전계사건, 四象 참조.

50) 상계사건, 四象 참조.

51) 申天浩, 「陰陽五行의 概論」, 서울:明文堂, 1986, pp.10~14.

52) 上揭書, p.18.

53) 韓宗秀, 「易理學寶鑑」, 서울:明文堂, 1979, pp.55~58.

54) 申天浩, 前揭書, p.58.

지 않는다.

이와 같이 十天干이나 十二地支도 五行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天干·地支라 함은 하늘에 근원하여 地轉에서 완성됨을 의미하고, 한편 모든 生物의 줄기(몸체)는 하늘을 향하여 자라고, 뿌리는 땅 속으로 자람을 나타내는 것이다.<sup>55)</sup> 그러므로 十天干이나 十二地支도 三才一體原理에서 발원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十天干과 十二地支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十天干은 불교의 十方世界와 十方淨土說이 되고,<sup>56)</sup> 十二地支는 十二因緣, 즉 無明·行·識·名色·六根·觸·受·愛·取·有·生·老死로 된다. 왜냐하면, 十二因緣은 이를 한편 十二地支라 하고, 음력 十一月(子月)에서 다음해 十月(亥月)까지의 웅만한 動植物의 生長消滅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7)</sup>

뿐더러 陰陽五行思想을 인간의 육체와 인간관계에 적용시키면, 그것은 東洋醫學이 되고, 儒學思想이 된다.

이상 논한 바와 같이 유교의 基本思想인 陰陽五行思想과 불교의 기본사상인 十二因緣說이 모두 우리 민족의 土俗思想인 三才一體의 原理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陰陽五行思想은 中國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의 固有思想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58)</sup> 뿐더러 儒敎나 佛敎도 神仙道の 流派요 支流라는 추정이 더욱 굳어진다.<sup>59)</sup>

## V. 神仙道の 政治思想

본항에서는 三才一體의 原理에 의해서 神仙道の 政治思想, 즉 상고대 우리 민족사회의 基本的 政治思想을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고대는 祭政一致社會였다. 그 意味는 宗教指導者가 政治指導者였고, 종교의식이 정치의식이었으며, 종교행사가 정치행사였고, 종교원리가 정치원리였다는 뜻이다.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神仙道の 三才一體原理를 정치에 적용시켜 상고대 우리 민족

55) 上揭書, p. 53.

56) 十天干과 十方世界가 가리키는 方位가 서로 일치되기 때문이다.

57) 음력 11월(子月)은 가장 추운 冬至달로서 웅만한 動植物은 모두 冬眠狀態로 들어간 때이므로 그때의 動植物의 性格과 기능은 十二因緣의 無明에 해당하며, 12월이 되면 땅속에서 植物의 뿌리에 새움이 트기 시작하고 땅속의 동물도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다. 그것은 十二因緣의 行에 해당된다. 그와 같이 動植物의 生長消滅 과정을 一年十二月의 기능에 비교하여 보면 十二地支와 十二因緣이 그대로 일치한다.

58) 金得視도 申采浩說을 인용하면서 陰陽五行思想이 우리 나라에서 먼저 일어나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金得視, 前揭書, p. 35.)

59) 安和範, 前揭書, "IX. 老·釋·孔의 道·佛·儒의 起源과 神仙道와의 相關性"에서 老·釋·孔의 道·佛·儒도 원래 神仙道の 流派요 支流임을 전거를 들면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사회의 정치적 성격과 그 내용 및 형태, 다시 말하면, 神仙道の 政治思想을 간략히 인출하여 본다.

첫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최대의 人權尊重思想이다.

三才一體는 天一·地一·人一의 一體이다. 이 경우「一」을 人格의 의미로 보면,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人格的 合一思想이 된다. 나누어 말하면, 그것은 天人合一·地人合一思想이다. 이는 사람을 하늘과 같이 거룩하게 섬기고, 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늘은 인간에게 위엄과 사랑을 베풀고, 땅은 인간에게 먹이를 준다. 그래서 하늘은 아버지애, 땅은 어머니애 비유되기도 하므로 天人合一思想은 사람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고, 地人合一思想은 사람 섬기기를 어머니 섬기듯 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三才一體는 최대의 人權尊重思想이다. 그래서 상고대 우리 민족사회를 東方禮儀之國 또는 君子之國이라 불렀던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상고대에 벌써 우리 민족사회에는 民本主義 내지 民主主義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思想은 東洋三教 즉 道·佛·儒에 모두 공존한다.

둘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人間平等思想이다.

天一·地一·人一의「一」을 身分의 의미로 파악하면, 三才一體는 신분의 上(天)·中(人)·下(地)의 一體이다. 즉, 三才一體는 身分의 上下·長幼·男女·貧富·貴賤의 一體를 의미한다. 따라서 三才一體는 人間平等思想이다. 그래서 三國時代初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사회는 女性을 극히 존중하였다고 한다.<sup>60)</sup> 이는 新羅時代 善德·眞德·眞聖 등 女性으로서 王位에 오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人間平等思想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老子的 道教, 釋迦의 佛教 및 孔子의 原始儒教에 모두 共存한다.

셋째, 신선도의 三才一體는 花郎道 및 三均思想이다.

天一·地一·人一의「一」을 教育의 의미로 보면, 天一은 道道, 地一은 花道, 人一은 郎道에 비유되며,<sup>61)</sup> “道道는 德, 花道는 文, 郎道는 武를 의미한다.”<sup>62)</sup> 따라서 三才一體는 花·郎·道의 一體, 文·武·德의 一體를 의미한다. 이는 「三一神話」의 大德(天)·大惡(地)·大力(人)의 一體에 해당된다. 그것이 후대로 내려와서 「中庸」의 智·仁·勇 三達德이 되고,<sup>63)</sup> 현대에 와서는 知·德·體 三育一體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三才一體는 趙素昂이 말하는 三均思想(三均主義)이 된다. “三均主義란 하나는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이며, 다른 하나는 人與人균등(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 族與族균

60)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편, 前掲書, (「朝鮮上古史」, 第二編, 第二章, 大壇君王儉의 創作한 神說), p. 78.

61) 天一은 造化를, 地一은 教化를, 人一은 治化를 의미한다. 造化는 道에, 教化는 花(사랑)에, 治化는 郎에 해당된다. 따라서 天一은 道에, 地一은 花에, 人一은 郎에 해당된다. 그래서 天一은 道道, 地一은 花道, 人一은 郎道에 비유된다.

62) 月刊「民族知性」, (발행인, 韓昇助), 1986年 11月號(통권 9호), p. 179.

63) 「中庸」, 第二十章.

등(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國與國균등(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이다. 평등한 영역에 있어서 정치·경제·문화의 완전 평등을 이상으로 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 대 개인,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이다.<sup>64)</sup>

三才一體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면 天一은 조화기능으로서 그것은 생산 즉 경제를 의미하고, 地一은 교화기능으로서 그것은 교육을 의미하며, 人一은 치화기능으로서 그것은 정치를 의미한다. 이래서 三才一體는 정치·경제·교육의 三均思想이 된다. 또한 三才一體를 對人的인 측면에서 파악하면 天一은 세계 즉 국가 대 국가에, 地一은 사회 즉 민족 대 민족에, 人一은 인간 즉 개인 대 개인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趙素昂의 三均思想도 孫文의 三民主義에서 영향받았다고 하기보다도 고유의 民族思想에서 영향받았다고 할 수 있다. 洪善憲도 조소앙이 大宗教의 영향을 받아 檀君·神誌 등의 사상을 三均思想의 論理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sup>65)</sup>

네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全員一致의 合意制度을 의미한다.

天一·地一·人一의 「一」을 意見의 의미로 보면, 三才一體는 天·地·人의 意見의 一致, 上·中·下 또는 大·中·小의 意見의 一致, 즉 萬民의 意見의 一致를 의미한다. 多數決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全員一致의 合意制度임을 의미한다. 「檀君世紀」에 의하면 檀君王儉이 天帝子가 된 것도 國人の 추대에 의하여 되었으며,<sup>66)</sup> 고구려의 諸加評議, 백제의 國相會議, 新羅의 和白制度가 모두 全員一致의 合意制度였다고 한다.

다섯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상고대 우리 민족사회의 政治體制가 三權分立合意制度였음을 의미한다.

三權分立合意制度란 立法·司法·行政이 독립하여 업무를 집행하지만 업무의 결정은 三權의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三權의 合意에 의함을 말한다.

三才一體는 天一·地一·人一의 一體인데, 天一은 造化의 機能을, 地一은 教化의 機能을, 人一은 治化의 機能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정치에 적용시키면, 造化는 立法에, 教化는 司法에, 治化는 行政에 해당된다. 또한, 「一體」는 意見의 一致를 의미한다. 따라서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는 三權分立合意制度가 된다. 이러한 제도는 현대의 三權分立制度보다도 더욱 民主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론상으로 옳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겠는가? 더우기 三權分立制度는 근세 西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할 것이다. 文化에도 生·成·消·滅의 循環論이 적용됨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

「檀君世紀」를 보면, 제13대 檀帝 屹達 16년(B.C. 1767)에 州와 縣을 나누어 정하고, 직책의 한계를 정하였으며, 관리는 권력을 겸하는 일 없고, 정치는 법을 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고<sup>67)</sup> 하

64) 洪善憲, 「趙素昂의 三均主義研究」, 서울: 한길사, 1982, p. 14.

65) 上揭書, p. 80.

66) 金殷洙, 前揭書, p. 52.

67) 上揭書, p. 66.

여 古朝鮮時代에 벌써 地方自治制와 權力分立制度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檀奇古史」를 보면, 더욱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 즉, 前檀朝 제13세 단제 乾達 16년 조와 後檀朝 제7세 단제 登乙 2년 條에 國家權力을 立法·司法·行政으로 三分하여 權力分立制度를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sup>68)</sup> 이는 祭政一致時代에 종교의 원리를 그대로 정치에 적용시킨 것이다.

또한, 간접적 증거이나마 考古學的 實證이 있다. 古朝鮮보다도 오히려 그 이전 B.C. 3000년 경에 西歐의 古代文明史에 나오는 수메르國에 權力分立制度가 시행되었다는 실증이 있다. S.N. 크래머는 최초의 「議會制度 : The First Bicameral Congress」라는 논문에서 考古學的 연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外觀上으로 보아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구문명의 전유물인 것 같고, 최근에 나타난 것 같다. 그러나 수천년 전에 이미 議會民主主義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근동 아시아 전역에 이미 5000년 전에 정치적의회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의 기록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최초의 議會(Congress)라는 말이 기원전 3000년경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때의 의회제도는 지금의 우리의 것과 과히 다르지 않은 즉 兩院(Two Houses)이었다. 원로들로 구성된 상원(Senate)과 일반무사 계급으로 구성된 하원(Lower Houses)이 그것이다. "전쟁이나, 평화나" 이런 문제를 두고 양원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는데, 상원은 어떤 경우라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왕은 이러한 상원의 주장을 부결시키고, 이 안전을 하원에 회부시켜 토론하게 하고, 하원의 의견을 인준한다. 세계 어느 구석에 이런 의회제도가 있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회람에 민주주의적(Democratic), 로마에 공화제(Republican)란 말이 유럽대륙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수메르의 그것에 비해 훨씬 후대에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의회제도에 비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의회제도가 근동 아시아 즉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었다.<sup>69)</sup>

이상과 같이 S.N. 크래머는 기원전 3000년 전의 수메르國에 議會制度가 있었고, 더우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원되었음을 考古學的 근거에 의하여 밝히고 있다. 이어서 수메르國에 法院이 있었고, 최초의 法廷判例(The First Legal Precedent)가 있었음도 밝히고 있다.<sup>70)</sup> 여기에 王宮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메르國에 三權分立制度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수메르國과 古朝鮮과의 관계를 찾아보면, 수메르인의 얼굴형, 검은 頭髮, 言語 등이 한국인의 그것과 같거나 비슷한데,<sup>71)</sup> 수메르인의 전승가요에 홍수(Flood) 바로 직후에 하늘로부터 王權을 받았다 하고,<sup>72)</sup> 「檀君世紀」를 보면, 제15세 단제 代音 辛巳 2년(B.C. 1660)條와 제27세 단제 豆密 甲申 元年(B.C. 997)條에 홍수가 크게 넘쳐었는데 바로 그 해 수메르國의 使臣이 古朝鮮에 방물을 받치었다고 하였다.<sup>73)</sup>

68) 大野勃著, 鄭海珀譯, 「檀奇古史」, 서울: 개마서원, 1980, p. 25 및 54에 보면 이상과 같은 기록이 있어 「檀奇古史」가 더욱 부정되고 있으나, 이제 그러한 내용이 논리적이거나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檀奇古史」의 신빙성도 한층 더 높게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9) 김상일 역음, 「人類文明의 起源과 한」, 서울: 가나출판사, 1987, pp. 147~148.

70) 上揭書, p. 153.

71) 上揭書, p. 3 및 p. 379.

72) 上揭書, p. 149.

73) 金殷洙, 前揭書, p. 68 및 7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B. C. 3000년 경에 수메르國에 三權分立制度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점. 둘째, 아시아인 古朝鮮에도 三權分立制度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셋째, 수메르인과 우리 민족이 원래 같은 민족이라 추정되는 점. 넷째, 수메르國이 하늘로부터 王權을 받을 때에도 홍수가 있었다 하고, 수메르國의 使臣이 古朝鮮에 방물을 받칠 때에도 홍수가 있었다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桓因의 나라 古朝鮮을 의미하는 것이라 추정된다는 점. 더우기 虛空인 하늘에서 王權을 준다는 것은 실제할 수 없는 일이며, 桓因을 하나님이라 하므로 그 나라 古朝鮮을 종교적으로 높이어 하늘이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수메르國과 古朝鮮이 서로 왕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수메르國은 하나님의 나라인 古朝鮮의 下位國이라 할 수 있으며, 議會制度 내지 三權分立制度가 古朝鮮에서 먼저 발원하여 수메르國으로 전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메르國에 三權分立制度가 시행되었다 함은 古朝鮮에서도 그것이 시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우기 古代 東西洋通路인 실크로드가 天山山脈을 가운데 두고 古朝鮮과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메르國과 古朝鮮에 공히 三權分立合意制度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를 시대적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부정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조상의 슬기를 무시하는 것이며, 祭政一致의 原則을 신봉하면서 부정하는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의 변천이 人口의 점진적 조밀화와 사회의 이기화에 따라서 德治政治에서 君主政治로, 君主政治에서 獨裁政治로 改惡變質되어 왔다고 볼 때, 비록 상고대라 하더라도 三權分立合意制度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상고대 우리 민족의 國土經營原理가 一國三體制聯立共和政이었음을 의미한다.

一國三體制聯立共和政이란 一國을 三分하여 主權·國民·領土의 獨立을 인정하고, 거기에 首都와 統治者가 각각 따로 있어 정치함을 말하나, 중대한 업무의 결정은 三王의 合意에 의하지만 중앙의 大王이 中心이 되고, 左右의 副王은 보좌역이 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三才一體는 그러한 意味의 一國三體制聯立共和政을 의미한다. 즉, 하늘(天一)은 인간(人一)에게 고루 사랑을 베풀고, 땅(地一)은 인간(人一)에게 먹이를 준다. 따라서 사람은 주체가 되고, 하늘과 땅은 보좌역이 된다. 이를 정치에 적용시키면 人一은 大王格이 되고, 天一과 地一은 副王格이 된다. 그러므로 三才一體는 一國三王聯立合意制 즉 一國三體制聯立共和政이 된다.

申采浩에 의하여도 古朝鮮의 國土經營原理가 一國三體制였다고 한다. 즉, 檀君王儉이 이미 三神·五帝의 神說로써 우주의 조직을 설명하고, 그 神說에 의하여 人世一般의 制度를 정하였으니, 신한과 말한과 불한의 三韓을 세워 大檀君이 신한이 되니, 신한은 곧 大王이요, 말한과 불한은 곧 左右의 副王이니 신한을 협조하는 자러라.<sup>74)</sup> 「韓」은 國名이 아니라 王이란 뜻이니, 三韓은 古

74)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編, 前掲書, (「朝鮮上古史」, 第二編, 第二章, 3, 신수두의 三部五部制度), p. 80.

朝鮮을 分統한 三大王이며, 古朝鮮은 三韓 곧 三王의 分統한 바 三大地方이며, …… 三韓의 都는 ①「으스라」令 하르빈, ②「아리티」令 蓋平縣 東北 安市故墟, ③「퍼라」令 平壤이라 했다.<sup>75)</sup> 「太白逸史」에 의하여도 三神說에 의하여 三朝鮮의 分權管境制가 있었다 하고,<sup>76)</sup> 거기에 三韓이 있었는데 그 首都는 申采浩說과 同一하다.<sup>77)</sup> 이와 같이 고조선의 國土經營原理는 三才一體原理에 의한 一國三體制聯立共和政이었다.

일곱째, 神仙道の 三才一體는 상고대 우리 민족사회의 生活原理였다.

앞에서 三才一體는 聖俗一體思想이라 하였다. 聖俗一體는 宗教와 世俗의 一體를 의미한다. 종교인이 세속인이고, 세속인이 종교인이며, 教堂이 家庭이고, 家庭이 教堂이라는 것이다. 즉, 世俗의 宗教化, 宗教의 世俗化를 의미한다.

그래서 外國人이 우리 민족을 볼 때, 우리 민족은 모두가 宗教人 같다고 한다. 밖에서의 對人關係를 보면, 예의 바른 儒敎人 같고, 집에서 책을 보고 朝夕으로 참선하는 것을 보면, 독실한 佛敎人 같으며, 위기나 운명에 임박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보면 信心 깊은 道敎人 같다고 한다. 그뿐만이, 가정에서도 제사올리고, 나아가 마을에서도, 관아에서도 제사올린다. 그것은 三才一體의 原理에 의해서 神仙道の 思想이 그대로 사회에 적용된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家族構造에 있어서 祖父母·父母·子女의 三代同居家族構造, 혼인제도에 있어서 新郎宅과 新婦宅 및 仲媒의 三者合意制度, 食事制度에 있어서 밤과 국 및 찬의 불가분적 三位一體關係, 一日三食制度, 제사 때의 三獻官·三拜·三盞의 禮, 身分에 있어서 君·師·父 三位一體, 父·母·子 三位一體 등 이러한 것은 모두 三才一體原理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 VI. 結 論

이상 논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天一·地一·人一의 三才一體는 우리민족의 뿌리思想이며 原型思想이다. 왜냐하면, 三才一體는 우리 나라의 風土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三才一體原理에서 우리 민족의 宗教思想과 政治思想 및 社會思想이 모두 발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상고대의 우리 민족사회에는 벌써 고도한 先行文化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神仙道는 天道·地道·人道의 통일적 원리인 三才一體原理에 기초하여 발원되고 있었다. 이는 상고대의 우리 민족사회에 벌써 天道·地道·人道와의 有關學問이 발달하였음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혜

75) 上揭書, 「朝鮮上古史」, 第二編, 第二章, 2, 三朝鮮의 位置와 範圍, p. 92.

76) 金殷洙, 前揭書(太白逸史), p. 27.

77) 上揭書(太白逸史), p. 204.

의 터득없이 그러한 神仙道가 발원될 수 없고, 그러한 神仙道가 발원되고 보편화되었다는 것은 곧 그러한 학문이 발원되고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고대의 우리 민족사회에는 고도한 先行文化가 있었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세째, 오늘날 10월 3일의 開天節行事는 神仙道創設記念行事이다. 開天이란 「開」의 의미는 「道通」의 의미와 「大覺」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桓檀古記」 각처에 開天施教니 開天立教니 하는 기록이 있고, 단군왕검이 開天 1565년 10월 3일에 三神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리었다는 기록이 있다(桓檀古記의 檀君世紀). 이는 곧 단군왕검도 10월 3일에 天·地·人의 三才一體를 神格化시키고 거기에 경의를 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開天이란 의미는 天·地·人의 三才一體의 眞理에 대한 지혜의 문이 활 열리다는 뜻이며, 오늘날 10월 3일의 開天節行事는 神仙道の 大覺布教記念行事라 할 수 있다. 佛敎的으로 말하면 成道日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네째, 神仙道는 세계의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광범한 사상을 지닌 종교이다.

神仙道는 하나이면서 道·佛·儒 三大 宗教思想을 포괄적으로 지닌 종교이므로 老莊의 道敎보다도, 釋迦의 佛敎보다도, 孔孟의 儒敎보다도, 나아가서 세계의 어느 종교보다도 더욱 광범한 사상을 지닌 종교이다.

다섯째, 神仙道는 未分化된 근원적 始原宗教이며, 세계 모든 종교의 뿌리이다.

神仙道는 天道에 발생학적 원리를 두고 있으며, 세계의 어느 종교보다도 먼저 발원되었고, 가장 광범한 사상을 지닌 종교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神仙道는 道·佛·儒 三教思想을 원천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를 바로 인식치 못하면, 神仙道가 外來思想을 수용한 것으로 곡해되기 쉽다.

즉, 神仙道の 道敎的 要素는 老莊思想같이 보일 수 있고, 佛敎的 要素는 釋迦의 佛敎思想같이 보일 수 있으며, 儒敎的 要素는 孔孟의 儒敎思想같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神仙道와 同系思想인 花郎道가 老·釋·孔의 道·佛·儒 思想을 수용한 것으로 곡해하여 가장 원용무애하고 합리적 高等宗教인 神仙道와 花郎道를 체계적 敎理도 戒律도 없는 巫俗으로 추락시켰고, 民族思想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곱째, 神仙道는 理想과 現實, 強과 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中庸思想이며, 또한 中庸에만 얽매이지 않고, 理想과 中庸과 現實을 넘나드는 玄妙之道이다.

신선도는 현실적 儒敎思想과 이상적 道敎思想을 지님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려하면 中途的 佛敎思想에 의하여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中庸을 지키게 되고, 中庸에만 고집하려하면 현실적인 佛敎思想과 이상적인 道敎思想에 의하여 現實과 理想을 넘나들게 된다. 즉, 神仙道는 理想과 中庸과 現實을 넘나드는 玄妙之道이다. 神仙道の 思想이 그러하므로 우리 민족의 성격도 中庸에만 고집하지 않고 理想과 現實을 넘나들게 된다.

여덟째, 神仙道는 보편적 세계종교이다.

신선도는 사회적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종교가 아니라, 大自然의 운행원리

에서 발원되었으므로 그 思想은 보편 타당하여 세계의 어느 民族에도 수용될 수 있다. 또한, 신선도는 원래 天·地·人의 三才一體를 三神하나님 또는 하나님이라 하여 숭배하고, 教主를 숭배하지 아니한다. 즉, 自然을 숭배하고, 어느 인간을 숭배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神仙道는 민족적 국지적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 세계종교이다. 종교가 教主를 신격화시켜 숭배할 경우, 종교적 영웅들의 출세욕이 자극을 받아, 이들에 의한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게 되고 편파적 민족주의적으로 기울게 된다. 神仙道는 自然을 숭배하므로 거기에는 그러한 계단의 있을 수 없다.

이상의 결론에 이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신선도가 합리적 成立宗教라면 그에 대한 실재적 근거의 문제.

둘째, 합리적 성립종교의 구성요건으로서 道·佛·儒 三教一體思想 외에 說主·經典·戒律·儀式·理想郷(仙境·來世觀) 등이 神仙道에도 있느냐의 문제.

셋째, 花郎道가 神仙道와 同系思想이라면 신라 眞興王 37년에 받들었다는 花郎의 문제.

넷째, 神仙道와 老·釋·孔의 道·佛·儒와의 관계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들 문제와 그의 미비된 내용에 대해서는 筆者의 著書「民族思想의 源流」(서울: 敎文社, 1988)를 참고하기 바란다. 논리전개의 미숙이나 근거의 부족을 이해하기 바란다.

## 參 考 文 獻

- 葛 洪 著, 「抱朴子」; 張基權·金瑋永 譯, 「淮南子·抱朴子」, 서울:新華社, 1983.
- 桂延壽 編, 金殷洙 譯, 「桓檀古記」, 서울:가나出版社, 1985.
- 教育出版公社 編, 「世界哲學大事典」, 서울:教育出版公社, 1980.
- 金得椈 著, 「韓國思想史」, 서울:良友堂, 1974.
- 金富弼 著, 金鍾權 譯, 「三國史記」, 서울:廣曹出版社, 1979.
- 김상일 역음, 「人類文明의 起源과 한」, 서울:가나出版社, 1981.
- 南晚星 譯解, 「周易」, 서울:修文書館, 1983.
- 老 子, 「道德經」: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譯註, 國譯「花潭集·新註道德經」, 서울: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1.
- 大野勃 原著, 鄭海珀 譯, 「檀奇古史」, 서울:蓋馬書院, 1980.
-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6.
- 朴時仁 著, 「알타이 人文研究」, 서울: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 司馬遷 撰, 李成珪 編譯, 「史記」, 서울:서울大學校 出版部, 1987.
- 송호수 역음, 「겨레일 三大原典」, 서울:인간연합, 4316; 1983.
- 申天浩 編著, 「陰陽五行의 概論」, 서울:明文堂, 1986.
- 申采浩 著, 「朝鮮上古史」: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編, 「丹齋申采浩全集」(上), 서울:螢雪出版社, 1979.
- 安昶範 著, 「民族思想의 源流」, 서울:教文社, 1988.
- 李能和 撰, 「朝鮮道教史」(影印本), 서울:中央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7.
- 李東歎 譯解, 「大學·中庸」, 서울:成均書館, 1976.
- 李丙燾 著, 「韓國古代史研究」, 서울:博英社, 1981.
- 李乙浩 解題, 安浩相 譯註, 「三一神話」; 李丙燾·崔東熙 外譯, 「韓國의 民俗·宗教思想」, 서울:三省出版社, 1979.
- 李鍾殷 譯註, 「海東傳道錄·青鶴集」, 서울:普成文化社, 1986.
-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민중서림, 1982.
- 一 然 著, 李民樹 譯, 「三國遺事」, 서울:乙酉文化社, 1978.
- 張三植 編, 「大漢韓辭典」, 서울:進賢書館, 1979.
- 천도교 중앙총본부, 「天道教經典」, 서울:천도교 중앙총본부, 포덕 125.
- 崔南善 著, 「朝鮮常識問答」, 서울:三省文化 文庫版, 1974.

최민홍 저, 「한 철학」, 서울:성문사, 1984.

崔仁 著, 再考證「韓國思想의 新發見」, 서울:乙支社, 1981.

崔致遠 著, 「崔文昌侯全集」, (影印本), 서울:成均館大學校 出版部, 1982.

韓國古典研究會編, 「民族文化論叢」(第1輯), 神檀實記, 서울:民族文化社, 1981.

韓宗秀 外, 「易理學寶鑑」, 서울:明文堂, 1979.

洪善憲 編, 「趙素昂의 三均主義研究」, 서울:한길사, 1982.

Summary

A Study of Shinsonto's Thought based on the Three  
 Functions of Heaven, Earth and Humanity  
 – The Three Functions of Heaven, Earth and Humanity  
 are the Prototype of the Korean Nation's Thought –

*Ahn Chang-buom*

We have faith in three gods, that is, we deify the functions of heaven, earth, and humanity. We have worshiped three gods, because all things, including humans, are born, brought, educated, protected, and judged by them. We call these three functions the Ways of Heaven. Specifically, the function of heaven is a positive means of explaining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frigid zones, the function of the earth is a passive symbol of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torrid zones, and the function of humanity is a neutral means of explaining the character and function of the temperate zones. In our country's climate, the weather at the height of and in the beginning of the winter cold is similar to that of the frozen zones, the heat of the dog days, to that of the torrid zones, the weater of the spring and autumnal equinoxes to that of the temperate zones. Therefore, these functions faithfully reflected the climate, and the Three Religions of Tao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could be traced to these three functions.

In view of these facts, we have known that there has been a reasonable and scientific higher religion from ancient times. The unreasonable faith in the exercise and the thought of Tao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were parts of the folk customs and thus of minor importance.

But, by making deep research into this thought,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y were an humanitarian ideal, a supernatural idea, an occult thought, a thought of a common origin of life, a thought of unity, joining deism and atheism, a thought of reciprocity in antagonistic relationships, the doctrine of transmigration of souls, the principles of Yin and Yang, the principles of the five elements of chinese cosmology, the unitary doctrine of the trinity. In terms of administration, this means the thought of safeguarding human

lif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ersons, races, and nations; the uniformity of politics, economics, and education; the equality of knowledge, virtue, and power; the system of agreement by unanimity, not by majority the system of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the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ith three branches; in one nation.

From these facts, we can tell about this religion as follows : This is the most wide-spread religion in the world. This is an unspecialized, and basic religion. This religion has profound ideas, including concepts of the ideal, the reality, and the proper balance. This is an international religion that rises above society, race, and nation.